朝鮮日報

夕刊每日八面

社說

英炭坑夫罷業과 三角同盟 (世界的重大問題)

一

最近倫敦電報에 依하면 웰스 炭坑夫三萬人은 突然同盟罷業을 斷行하게되엿는데 그 爭議의 導火線은 積天의 待遇問題로因한 것이라한다 그러고 이 爭議를 援助하기爲하야 蹶起한 勞働黨幹部中에서는 前首相 맥도날드 前內相 헨다손 等諸氏가 同委員에 被選되야 이미 炭鑛主側과 賃金協定問題에 對하야 盡力하기를 聲言하고 지금 炭坑夫組合執行委員會와 協議中에 잇다한다 그런데 이 爭議에 對하야 政府側에서 調停하기 爲한 所謂 調查會案을 坑夫組合大會에서 滿場一致로 否決하고 그 決議案이 政府側에 通告되고 아울러 今後如何한 理由下에서라도 政府側의 調停은 拒絶하는 旨를 聲明하게된 結果 이 問題는 急轉直下의 勢로 展開됨을 따러 畢竟三角同盟의 大罷業이 이러날 機微가 자못 濃厚하여 젓다한다

二

누구나 英國의 炭坑夫爭議를 드를 때에 聯想하게 되는 것은 三角同盟 그것이다 그러면 三角同盟이란 무엇인가? 이것은 炭坑夫聯合會와 鐵道從業員組合과 運輸業者組合과의 聯盟을 意味하는 것이다 그런데 三角同盟이란 말이 世界의 耳目을 聳케할만큼 重大視되는 所以는 勿論 猛烈한 階級戰을 意味하게 되는 까닭이다 全世界가 資本對勞働의 兩大陣營으로 對峙分野되게 된 것은 煩說할 必要가 업거니와 露西亞에 無產階級의 總本營인 소비에트國家가 實現된 後에 勞働階級의 國際運動이 形式內容 兩方面에 잇서 一層 有力하게 되엿슴으로 英國에서 三角同盟과 가튼 大罷業이 爆發되는 것은 英國自體에만 重大한 事態가 될 뿐아니라 世界諸資本國家의 一大不安이라 아니할 수 업슬 바이다 만일 三角同盟의 罷業이 步調가 一致되야 爆發되는 同時에 世界의 勞働組合이 이에 聲援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世界的 階級戰의 序幕이 될 것이다

三

일즉 一九二一年四月八日 즉 有名한 暗黑의 金曜日에 三角同盟이 그 다음 火曜日로써 一致하야 罷業을 斷行하기로 한 것이 如何히 當時 英國政府를 爲始한 世界資本國家의 耳目을 驚動케 하엿든가 이것은 아즉 世人의 記憶에 새로운 바이어다 이와 가튼 重大事態가 迫到함에 當時 英首相 로이드 조지는 그 獨特한 機勇을 發揮하야 豫備軍의 總召集 飛行機 機關銃 탕크 等으로 罷業을 威嚇하엿스나 三角同盟側의 氣勢는 이로 因하야 더욱 昂騰되엿다 그리하야 火曜日에는 期於히 罷業을 繼行하기로 宣言을 發表하고 그는 라운 威力을 發揮하야 世界의 資本家를 戰慄케할 機運이 자못 濃熟하게 되엿다 그런데 威嚇으로써 罷業을 防止하라다가 狼狽한 로이드 조지는 그 結果의 可恐할 것을 豫想하고 도마쓰, 후랑크 等을 通하야 調停을 斡旋하야 겨우 六時間을 隔한 火曜當日에 僥倖히 危機를 버서나게 된 것이다 그 때 鐵道, 運輸 兩方에서 罷業中止를

……方面으로 反動勢力下에 蹂躙을 當하게된 今日에 다시 復活되바 그 階級가 前에 比하야 자못 膠密하게 되는 同時에 量으로 質에 잇서 前에 比하야 가장 充實한 戰鬪力이 로서 炭坑夫側에서 率先하야 一部의 罷業이 一層 深刻化하게 된 現象에 잇서서라 要컨데 資本主義의 本營인 英國의 運命을 左右할 三角同盟罷業의 如何는 자못 注目을 쓰는 重大事態이라 함을 指摘하여 두는 바이다

奉天火藥庫爆發로 死傷者四十餘名 原因은 張氏가 取調中

(奉天電) 二十二日午前一時 奉天城內兵工廠火藥庫가 突然爆發되여 隣接한 航空所, 爆彈格納庫에 延燒하야 爆彈一萬發은 大音響과 함께 爆發되야 奉天市民의 단꿈을 破하엿다 衛兵二名은 即死하고 監視職工四十二名은 重輕傷을 受하엿는데 原因은 昨夜歸奉한 張學良氏가 取調中이라더라

某重大問題로 外交團協調困難 芳澤公使協調에 奔走

(北京二十一日發) 上海事件에 關聯하야 公使團側에 重大問題가 發生한 件에 對하야는 外交團側은 絶對秘密에 附하고 잇스나 此는 過日某國으로부터 意外의 提議가 잇슴에 依한 것인데 二十日公使團會議에서는 何等의 決定이 업섯다 其內容은 上海工部局과 外交團과의 見解의 相異로써 某國의 新提議를 生하야 租界의 根本問題를 議하려고 하는 提議인듯하다 此問題發生으로 因하야 外交團의 協調는 漸漸困難을 加하게 되엿다 其間 芳澤公使는 衷心으로 調停役에 當한 貌樣인데 不自由한 다리로 各公使를 訪問하고 調和點의 發見에 奔走하고 잇스나 解決의 曙光은 認定되지 안코 上海事件交涉開始와 如한 것은 前途가 遼遠하다더라

一朝有事之時에 敵軍을 爆擊하려고 米飛機太平洋橫斷練習

(紐育二十一日發) 八月初旬에 擧行되는 米國加州布哇間의 飛行을 指揮할 「존 다오서」提督은 其飛行을 更히 延長하야 「미드아일란드」와 「우암」等島嶼에 達할 飛行을 決行하기로 하엿는데 此飛行에 對하야 布哇加州間二千四百哩의 飛行에 成功하면 一朝有事之際에 米國航空隊飛行機가 布哇를 攻擊하는 敵軍을 海岸四百哩의 地點에서 爆沈할 수 잇게 될 뿐아니라 또 「우암」島는 橫濱을 距하기 僅히 千五百哩임으로 「존」提督의 指揮할 飛行機는 事實上 太平洋을 橫斷하게 될 것인즉 日本으로는 脅威를 感할 것이더라

紐育에서도 탕크爆發 附近建物全壞 損害數百萬弗

(紐育二十一日發) 紐育報道에 依하면 近郊에 잇는 揮發油의 大「탕크」가 爆發되야 激烈한 大火災를 起하야 附近建物이 全壞되엿다 損害는 大約數百萬弗에 達할 터이나 아직 人畜被害의 報道는 업다

波蘭公債應募 不過四割로 失敗

(나우엔二十一日發) 波蘭이 最近米國에서 募集한 公債는 全혀 失敗에 歸하야 應募額은 僅히 募集額의 四割밧게 되지 아니하엿더라

『유』國首相重態

(나우엔二十一日發) 『유고』首相 『파시치』氏는 再次重態에 陷하야 『알쓰바트』로 가는 保養旅行도 延期되엿다 同氏는 政治生活로부터 引退하리라는 風說이

方今『페르그라-드』에서 盛行되더라

政友態度急變 幹部會合頻頻

(東京二十一日發) 二十一日午前九時 田中總裁邸에 武藤, 望月, 小泉, 小久保等諸幹部가 參集하야 十一時까지 密議하엿는바 이것은 焦眉에 急迫한 稅制問題에 對한 對策을 講究한 것으로 政友會의 態度는 二十日以來로 急轉하야 最高幹部의 會合이 頻頻하야 協調破壞를 豫期하고 作戰計劃을 하는 것으로 觀察되며 稅制案과 豫算과는 此를 關聯한 統一案이라 하야 審議하기를 政府에 要求하기로 決定한 貌樣이더라

政友態度軟化로 結局은 妥協乎

(東京電) 政府側에서는 二十一日夜에 至하야 政友의 態度가 妥協的으로 一變하엿다고 觀測하나 憲政幹部의 認定하는 바에는 政友幹部는 二十一日朝에 非公式으로 政道에 對한 態度를 協議한 結果 協調破裂은 不利하다는 結論을 得한 旨를 岡崎農相에게 通하엿슴으로

群山築港問題大會

青年會에서 不正面長糾彈! 不正事實에 憤慨한 面民 面費不納까지 同盟햇다

咸南北靑郡俗厚靑年會에서는 今般同面西湖里臨時會에서 委員會를 開催하고 同面長의 지어온 여러가지 罪狀에 對하야 徹底히 糾彈하는 同時에 아조 不信任하기로 決議하엿는데 此의 實行委員及理由는 如左하다더라

◇不信任理由

一、部下職員의 監督이 不充分하야 面民의 被害가 甚多한 事(例컨대 李東朴 李孝璜의 印章僞造事件가튼것)

一、農會補助의 稻扱機를 申込者에게는 不與하고 親近者에게 賠渡한 事(此에 對하야 蒼城里民은 面費不納同盟까지 하엿다)

一、俗厚市場設置問題에 對하야 偏意로 多數人民의 意思를 無視한 事

一、敎育과 産業에 無誠意無責任한 事

◇決議文

一、吾等은 韓面長在職中에는 面當局의 指揮를 絶對不服하는 同時에 最後此를 排斥할일

◇委員

李寅熙 韓道錫 張寅松 趙德基 趙丁元(北靑)

四郡聯合庭球 選手들의 猛演習

全北錦山郡內에 在한 錦山靑年會에서는 來八月二日부터 開催하는 四郡(錦山 龍潭 茂朱 長水)聯合庭球大會에 出戰코저 庭球選手들이 每日練習에 熱中하는 中인데 四郡은 아즉 靑年團體로 親睦會를 組織하야 每年聯合庭球大會를 開催하기로 한바 去年의 優勝旗는 龍潭軍의 手에 歸하야 保管되여오는바 今番夏期의 試合도 會則대로 優勝旗保管地인 龍潭에서 開催할터이라더라(錦山)

敎員唱歌講習

楊州郡敎育會에서는 今般各學校의 夏期休學을 利用하야 唱歌講習會를 開催한다는데 敎員諸氏는 多數參加하기를 바란다하며 其要項은 左와 如하다더라(楊州)

一、會場 議政府公立小學校
一、期間 八月一日부터 五日間
一、申請 七月二十日外지
一、申請場所 郡廳內楊州敎育會 但會費不要

三面合同으로 工業上重要道路

尙州郡咸昌面에서 聞慶郡永順面으로 直通하는 道路로 말하면 豐基方面으로 通行하는 道路가 되야 잇슴에 不拘하고 現道路는 너무 不完全함으로 前記三面에서 크게 改修할 豫定이라는바 咸昌, 永順兩面은 大槪協議가 되엿스나 兩面間에 잇는 戶西面이 아즉 合議가 업는 中인데 그래도 如何間 今年十月以內에는 着手를 보게될터이라는 바 더욱 咸昌面에서는 市街에서 停車場外지 貨物을 運搬할 道路가 不完全함으로 이것은 곳 着手할터이라하며 또 咸昌米院間으로 말하면 滿州로 通하는 重要한 道路일 뿐더러 牙川里에는 山下黑鉛鑛 咸昌鑛業所가 去五

局子街에 養蠶講習會 十三日부터 開催

間島局子街朝鮮民會의 主催로 지난 十三日에 養蠶講習會를 연다함은 旣報한바 어니와 豫定과 가티 當日上午十時半부터 當地靑年會館內에서 開會하얏는데 同朝鮮民會長 崔允周氏의 簡單한 開會辭가 잇슨後 講師 가習準一氏가 登壇하야 桑葉栽培法, 養蠶法, 蠶兒飼育等法을 一一히 說明한 後 當日下午四時에 閉會하얏는데 各處로부터 出席한 聽講員은 男女를 並하야 二百餘名에 達하얏더라(間島)

洪原春蘭 成績良好 石數에 二倍半 價格四倍增加

咸南洪原郡에서는 지난 六月二十日부터 今月九日外지 二十日동안에 本郡廳及龍源面事務所의 二個所에서 春蘭共同販賣를 行하얏는대 販賣成績은 石數가 五百二十五石 此價額이 三萬七千四百十六圓十八錢이며 其後十一月間販賣分이 石數二十石 價額一千五百圓假量이 될터인데 此를 昨年에 比하면 石數로 畧二倍半 價額으로 畧四倍나 增加한 好成績을 得하엿다더라(洪原)

利原商務總會

咸南利原邑內에 잇는 商務會에서는 來二十五日午前十時부터 本會館內에서 左記事項을 討議하리라더라

一、收支報告
一、規則修正委員의 報告
一、會員募集委員의 報告
一、魚市場用地에 對한 問題
一、其他(利原)

海魚賣買好況

本月一日부터 同十日外지 元山仲介組合을 經由하야 賣買된 物貨價格은 七萬三千五百三十圓인데 此의 數量及單價는 如左하다더라 各種鯛太 六十五駄 十級 每駄에 八十圓 ▲同約太 一百九十四駄 三十級 每駄에 自六十五圓으로 至七十五圓 ▲同寮太 一百十一駄 一級 每駄에 自三十二圓으로 至四十八圓 ▲同早寮 九百九十五個 每個에 自五圓으로 至六圓 ▲同鹽古同魚 一百三十五接 每接에 百八十九圓으로 至一百三十二圓 ▲同生古同魚 三十九接 九十五級 每接에 自八十圓으로 至一百十五圓 ▲同昆布 一百四十五個 每個에 自四圓二十으로 至七圓 ▲鯖太 一百二十駄 六十級 每駄에 自六十七圓으

咸興童話大會

咸興基督敎靑年會에서는 去十七日午後三時부터 當地東明劇場에서 朴曾周氏司會로 童話大會를 開催하엿는데 觀衆은 無慮三百餘名에 達하야 非常한 盛況을 이루엇는데 當日演士의 氏名은 如左하다더라 金東鎭 (咸興)

……十六錢으로 至二十二錢이라더라(元山)

印工發會 祝電雨下中에 盛大히 擧行

事情에 依하야 二次式이나 延期되엿든 海州印刷職工親睦會發會式은 지난 九日午後九時부터 海州天道敎堂內에서 李寬浩君의 開會辭로 盛大히 擧行되엿는데 劈頭에 『단소』『배요령』『하모니카』『歌劇』等의 祝奏가 잇섯고 또 來賓祝辭에 入하야 本支局代表 曹哲君과 宋彥弼, 崔承林兩氏의 意味만흔 祝辭가 잇섯고 其外 劉鉉氏及海州新聞配達組合代表等의 祝辭가 잇섯스며 會員으로 高時彥君의 答辭가 잇슨 後 午後十一時三十分에 閉會하엿는데 더욱 當日地方으로부터 아래와 가티 만흔 祝電과 祝文이 잇섯다더라

馬山印刷職工組合 海州新興少年會 海州北星少年會 海州民藝會 海州社會思想研究會 京城勞働總同盟 京城新興靑年同盟 京城北風會 京城火曜會 京城無產者同盟 朝鮮勞働黨 仁川勞働總同盟 京城印刷職工組合 京城女性同友會 京城女子靑年同盟 海州新聞配達組合(海州)

全安邊記者團創立 言論權을 爲해

去十六日午後八時부터 咸南安邊郡新高山東亞日報分局事務室에서 全安邊記者團發起會를 開催하고 여러가지를 討論한 結果 二十七日午後二時에 發起總會를 京元線釋王寺迎月樓上에서 開催하기로 되엿다더라(安邊)

……하엿는데 其氏名은 如左하다더라

◇決議事項

一、開演時間은 第一日은 午後八時부터 第二日은 午後一時부터로 할것
一、演士의 演說時間은 十分間으로 할것 但 超過時에는 五分間을 延長함을 得함
一、大會終了即時 審査報告及賞品授與를 行한 後 少年少女懇親會를 開催할것
一、少年行列은 第一日午後一時부터 全市街에 行할것 但 列順은 抽籤에 依할것

◇選委員

庶務部 金炳圭 朴勝億 崔演順 具錫晋 接待部 金濱碩 鄭正均 朴勝彬 薛駿碩 會計部 朴在鳳 孫寧植 崔良善 金演鎬 但 懇親會準備는 接待部委員에 一任할것(木浦)

鑛五千八百八十五度, 鑛越一萬四千八百八十四度, …八百九十度, …二千二十四度, 鑛越一萬一千八百八十三度(元山)

永興點燈不遠 電氣會社創立中

既報=永興水力電氣株式會社는 其間發起人側에서 諸般準備를 하며 오다가 去十七日午前十一時부터 發起總會를 永興郡廳會議室에서 開催하고 議長任興準氏司會下에 諸般案을 通過한 後 發起人代表會額外十四人을 選定하엿고 事務所는 永興釀造組合內에 置할것과 發起人引受株數外에 應募者가 업는 境遇에는 發起人代表가 全部負擔할것과 木浦發電所에서 總株數二千株에서 半數를 負擔할 事等을 決議하고 午後五時頃에 無事閉會하엿다는데 不遠將來에 永興市街에는 燦爛한 電光을 보리라더라

◇任員 會長 小宗千代吉 總務 金錫丙 書記 元喜國(永興)

全間島大運動會 十月中開催코저 準備中

間島運動界를 向上시키기 爲하야 組織된 間島體育會에서는 去十日同會臨時會館內에서 委員會를 開催하고 各部報告及運動部로부터 提出한 全間島陸上競技大會를 來十月一、二、三日間 開催할 建議案을 接受하고 其他의 各自意見을 交換한 後 散會하엿는데 同會幹部는 如左하다더라

▲委員長 金正琪 ▲庶務部主任 全盛鎭 ▲同部員 金斗植 金圭復 ▲經理部主任 李泰俊 ▲同部員 田性元 朴章會 ▲運動部主任 金成輝 ▲同部員 鄭完周 朴章會 金英浩 任永彬 韓長順 ▲地方部主任 金順九 ▲同部員 元泰喜 朴章會(間島)

一、經過事項報告
一、入會金收納의 件
一、維持方針 其他(利原)

茂朱各校夏休

全北茂朱郡內에 잇는 各公立普校의 夏期休暇日割은 如左하다더라

茂朱公立普通學校 二十日
茂豐公立普通學校 二十日
安城公立普通學校 二十日
赤裳公立普通學校 二十日
富南公立普通學校 二十日(茂朱)

利原商務評議會

咸南利原邑에 잇는 商務會에서는 去十五日評議會를 金淳玉宅에서 開催하고 議長金南奎氏의 司會로 諸事項을 討議決定하엿는데 이것을 來定期總會에 提出하리라더라

一、株金整理에 關한 件
一、魚市場問題의 件
一、其他

聯合會夏期講習 朝鮮文法敎授

咸南北靑郡靑年會聯合會에서는 今番夏休를 利用하야 短期講習會를 開催하엿는데 大略 그 規定은 如左하다더라

一、期間은 自七月二十四日至八月十三日
一、科別及講師氏名
(가)朝鮮語文法科 金士翊
(나)英語二卷程度 金學祐
(다)代數因解以上 李錫勇
(라)幾何作圖以上 李錫勇
一、授業料五十錢(但 一科以上授業者는 一圓으로 함)
一、出願期日 七月二十三日外지
一、各科에 十五名未滿될 時는 開講치 아니함(北靑)

端川植桑好況 逐年增加된다

咸南端川郡의 蠶業이 近年에 이르러 長足의 進步를 遂하는 中인바 特히 本年에 이르러 植栽한 桑苗의 數와 그 植栽面積이 아래와 가치 激增되엿다더라

新植栽桑苗本數 [illegible]本
新植栽桑田反別 [illegible](端川)

全羅南道少年少女雄辯 委員會開催

木浦靑年會와 朝鮮, 東亞兩支局合同下에 오는 廿五六日에 全羅南道少年少女雄辯大會를 木浦에서 開催한다함은 이미 報道한바 그 準備委員會를 지난 十七日午前十時에 靑年會館에서 開한 結果 左記各項을 決議하고 同準備委員을 增選

養蠶振興策으로 『桑之日』設定 當日小學生들이 旗行列

咸南端川郡農會에서는 蠶業奬勵上 一般農民에게 桑樹栽培에 對한 그 管理方法을 指導하여 또 一般에게 桑樹管理의 觀念을 지어주기 爲하야 特히 『桑之日』이라는 날을 定하야 五月二十日, 七月二十日, 十月十五日 三期에 分하야 全部一致로 이날은 桑園에 나서 일하기로 한다는데 特히 各公私立學校의 小學生들로 하여금 『桑之日』이라는 旗를 들고 終日附近을 行列케 하는 등 여러가지로 『桑之日』을 宣傳한다더라(端川)

定州明新校更張

平北定州郡安興面安興洞私立明

律詩懸賞募集

平北定州郡葛山面五山吟社에서는 儒林諸氏의 發起로 文藝懸賞募集을 한다는데 그 規程은 如左하다더라(定州)

律詩題 綠陰
押韻 空東中工同(七言)
投稿場所 平北定州郡葛山面益城洞一五六番地 方明勳方
投稿期限 陰六月十日外지
用紙 朝鮮白紙半截로 하고 住所氏名兼詩號를 詳記할 것을 要
刊料 每首二十錢式으로 하되 小爲替로 件移郵送할 것을 要(但 十首以上投稿者에 免除)
賞品 一等一人 二十圓 二等一人 十圓 三等一人 十圓 四等八人十五圓 二十五人各一圓式 等外百名은 芳名載錄

女學生見學

咸南利原勸業社內養蠶傳習所女學生十九名은 去十九日金亮根 金桂燮兩氏의 引率下에 洪原 咸興 永興等地를 見學次로 出發하엿더라(利原)

女蠶業敎師好績

高原郡에서 今般選拔되야 洪原郡에 蠶業巡回敎師로 갓던 鄭元淑, 方永善, 金明愛 三女敎師는 熱誠을 다하야 盡力한 結果 그곳 今年蠶業成績은 例年보다 五割以上의 良好한 成績을 일우엇다더라(高原)

襄陽春蘭好況

襄陽郡養蠶組合에서는 去月十五日부터 本月七日外지 春蘭販賣를 하엿는데 그 總石數가 一千一百十九石五升四合 代金總計七萬六千八百七十七圓九十八錢이라는데 昨年에 比하면 成績이 매우 良好하다더라(襄陽)

咸興靑年委員會

咸興靑年會에서는 本月十七日午後三時에 同會館內에서 執行委員會를 開催하고 左記와 如히 各部任員選定과 一般事件을 決議하엿다더라

委員 財務部 鄭奎會 李龜洞 庶務部 張載源 金鏞兆 朴紘 敎育部 全仲奎 金英淑

決議事項
一、常務委員選定의 件
一、遊學生懇親會開催의 件
一、講演會開催의 件
一、會館火災保險의 件
一、懇親會場所는 城川江邊으로 定할일
一、懇親會費는 七十錢으로 할일(咸興)

桑苗二十萬株 配付를 決議

全北錦山郡에서는 去十六七兩日間에 錦山棉作組合繰綿工場內에서 面長會議를 開催하고 여러가지로 討議한 後 特히 蠶業에 對하야 左記와 如히 決議하엿더라(錦山)

一、今年度栽桑苗配當에 關한 件(桑苗配當本數는 二十五萬百株, 植栽面積은 七十三町二段一畝)
二、女子蠶業傳習所設置에 關한 件(可決)
三、錦山郡蠶業組合乾繭場繭取扱場附設에 關한 件(蠶業組合에서 自擔)(錦山)

禮安公普校同窓會

慶北安東郡禮安公普校에서는 二十三回에 二百餘名의 多數한 卒業生을 내엿스나 아직外지 何等의 集合機關이 업섯던바 現世專醫校生 申亥均君等의 發起로 去十五日에 同校講堂內에서 議長申漢均氏司會下에 同窓會發起會를 開하고 圓滿히 討議한 後 創立總會는 來二十五日에 擧行하기로 한 後 準備委員으로 申亥均外九人을 選定하엿다더라(禮安)

遮湖公普學父兄會

咸南利原郡南面遮湖公立普通學校에서는 지난 十五日下午一時부터 該校講堂內에서 第二回學父兄會를 開催하고 臨時議長張南極氏司會로 左記事項을 決議하엿다더라

◇決議事項
一、規約通過

元山郵便局業績

客月中에 元山郵便局에서 取扱한 郵便物은 左와 如하다더라 書留通常引受 六千八十四度, 配

上坪各校 石造校舍 有志의 熱誠으로

咸北城津郡鶴上面上坪洞에 잇는 私立上坪學校는 隆熙元年에 學契의 손으로 設立된 뒤 二十餘年來에 數百名俊聰을 養成하야 地方文化의 向上에 만흔 貢獻을 하여왓스며 또 現在로도 百餘名學童을 收容하야 熱心育英하는 터인바 얼마 전에 그 洞里有志의 發起로 校舍를 新築하게 되야 洞民들의 自進으로 寄附와 온갓 賦役을 하야 至今에는 宏壯한 純石造를 築造하고 또 安壽泉氏等 여러 敎師를 새로 延聘하야 敎授

利原幼年主日卒業式

咸南利原邑長老敎會堂內에서 幼年主日學校第二回卒業式을 去十九日午後一時에 校長梁珍鴻氏司會下에 盛大히 擧行하엿는데 卒業者氏名과 受賞者氏名은 左記와 如하다더라

卒業生 鄭夢今 李福順 朴蓮鶴
受賞者 一等 李福順 崔淳玉 姜得善 二等 黃月桂 申彩協 金竹筍 三等 梁中女 梁松女 以上女子部
一等 申瓚私 朴成業 梁動學 二等 黃淨一 李正洙 黃鳳烈 三等 羅今石 方壽鐵 注周學 姜得珠 以上男子部(利原)

元山橫斷貿易額

本年一月부터 六月外지 元山港에 日本海橫斷航路貿易은 敦賀線對移出百六十一萬七千二百九十五圓 同移入二十一萬八千八百七十九圓 伏木線移出十七萬二千五百六十六圓 同移入七萬千二百四十二圓인바 此를 前年同期間貿易額에 比하면 敦賀線에 移出三十萬二千二百三圓이 增加되고 移入에 四萬三千六百六十八圓의 減少가 된바 鮮局에 二十五萬八千五百三十五圓이 增加되고 伏木線에 依하면 移出十一萬六千五百四十七圓 移入四千二百五十四圓이 增加되엿다더라(元山)

女子夜學卒業式

慶南金海靑年會에서 經營하는 金海女子夜學會에서는 지난 十日午後九時부터 金海私立合成學校階上에서 執行委員長裴漢浩氏의 司會로 同夜學會第五回卒業式을 盛大히 擧行하엿는데 今回는 卒業生九名과 乙班修業生十名과 丙班修業生二十九名에 이르는바 其中各班優等生은 아래와 갓다더라

一、卒業生優等 兪順五 朴富年
一、乙班優等生 金末順 張鳳守
一、丙班優等生 李順伊 梁福介 全順明(金海)

女學生修學旅行

全北錦山郡內에 在한 錦山公立普通學校女子部五六學年은 今般夏期休暇를 利用하야 群山 全州等地로 修學旅行을 할터인데 더욱 全州에서 開催하는 敎育展覽會의 音樂

晋東講習會 維持難 有志奮起를 希望

慶南晋州郡一班城面에 잇는 晋東講習會는 四年前에 그 面內有志 李鍾鶴 朴元若 崔敬允等諸氏의 發起로 設立된바 여러가지로 難關이 닥칠 때마다 晋州勞働共濟會一班城出張所 自由勞働幹部로 잇는 現在 小島東鐵廳援事件으로 釜山監獄에 服役中인 韓永俊 方鳳錫 姜炳大 李直發諸氏의 直接의 努力으로 維持하여 오던바 最近은 經濟의 不況으로 日迫하는 狀態에 잇는데다만 現今敎員 金讚泰氏 한분이 四學級을 獨擔敎授로 매우 努力하는 中인바 收容學生은 約六十名에 達한다더라(班城分局)

……잇는 主要人物은 如左하다더라 設立者 林周煥 金董龍 安斗一 金錫振

啄木鳥

投稿歡迎 十四字 五十行以內要 住所氏名明記

罹災民의 運命

◇우리朝鮮에 三年來로 洪水가 잇섯지마는 今年가튼 大洪水大慘事는 아마 前例에 업섯슬가 한다 新聞紙는 洛東江沿岸을 中心으로한 各地의 慘禍를 連日滿紙의 狀況으로 報道하니 다 보는 者 뉘 아니 애닯아하며 同情의 淚를 쌔리지 아니하랴

◇不幸中幸이라할지 坡州에도 農作物其他에 被害가 莫大하며 交通外지 杜絶된 곳이 部分的으로도 만이 잇섯지마는 人命에는 아마 關係가 업는가? 한다

◇漢江下流인 坡州郡靑石面松村里에는 上流로부터 떠나려오는 人畜家屋이 無數하엿는데 此를 發見한 同面書記 黃中植君과 警官의 努力으로 救濟된 人命이 十餘名이라는 傳說을 드른 筆者는 昨日同地로 急行하야 보니 水勢는 이미 減하엿스며 漂流物은 업섯다

◇그리하야 여러 救濟된 이들을 訪問하니 都合十四名인데 全部가 高陽郡松浦法串龜山兩洞農民들이엇다 救濟船의 손이 잇츠기 前에 流失된 生命이 또한 不少한 貌樣인 때 九死一生으로 救濟된 그들에게 大書特筆 夫十八日夜 漢江上流의 急激한 增水로 그 벌에 잇든 家屋總數五十二戶는 全部流失되엿고 人命은 여긔 救濟된 者外에는 全部行方不明이라하며 自己네는 大槪가 勸農會社의 小作人이라한다 아! 이 慘劇!

◇高陽郡當局이나 勸農會社 아 同情의 淚를 쌔리기 바란다 卽斯한 慘事가 三南各地에 잇는 者이 어렵다 아! 눈물이 잇는 者 뉘 아니 同情하랴마는 特히 有產者諸君에 付托하며 곳흔 饑饉救濟會委員諸氏의 努力을 救히 一言으로 感謝하며 아울러 事業의 成功을 祝한다(交河에 鍋南)

元山驛取扱貨物

元山驛貨物取扱所에서 取扱한 本月上旬의 貨物은 發送二千二百六十五噸 貨車收入一萬五千五百三十圓三十七錢 到着千六百七十噸이라는바 發着貨物內譯은 如左하다더라(單位噸)

發送貨物 乾明太 二六六 鯖魚 四五九 海藻 九一 米 七四 粟 九〇 木材 三九八 馬 一〇頭 軍需品 一五 局用品 一五六 金屬品 三〇 其他 七一六 合計 二二五六

到着貨物 米 二一〇 粟 二七〇 大豆 七八 雜穀 六〇 鹽 三〇 新炭 五二 木材 三六 黑鉛 一八〇 고무靴 三三 石炭石灰 六〇 刻卷莨 三九 馬 一五頭 局用品 一〇八 其他 四四三 合計 一六七〇(元山)

◇寸鐵◇

【安東】郡守李胤榮氏는 某代表와 言爭이 잇서 某代表의 言辭이 흡햇다하고 그것을 暴行이라고 小使를 불러 『警察署에 電話를 걸고 裴警部를 불러오라』고 하얏다나 何如 實로 暴行이면 警官은 一般이지 何必 裴警部일가 專用警部로 指定하얏든가?

◇【永興】永興郵便所는 以來配達의 不敏으로 非難이 만턴바 難德이 民들은 참다못하야 配達夫某某를 毆打한 結果 적이 改善되엿다 한다 所長이 該地方에 出張하엿더면 全永興이 改良되엿슬 것을

◇【海州】有志인 體紳士인 某某는 酒肆에 沈沒라가 某某靑年에게 逢變을 하얏다든가 自今以後는 賢似인體나 하라

◇【班城】一班城面靑年會가 잇다는 말은 들엇는데 아모리 차자보아도 看板은 업다 內容이 不充實하고 看板만 宏壯한 團體잇지는 하지마는 看板업는 靑年會의 內容은 如何

◇第二面◇

(五)홍수후의뚝섬

(八)왕십리역전렬도

◇第三面◇

(二)한강인도교근다

(四)침수중의신룡산

(八)가와피난하는광경

(十一)왕십리본사

라로실어내는광경
(二)비는칠대기티쏘

광경
(三)처참하홍수중에

난민에게식사를공급
하는광경

의사
경

되도(가로줄을친곳
은물에잠겻던디뎜)

데방이류실되야전로
가파괴된광경

로히서잇는인도교의
전경

방면의참상
(七)침수중의룡산시

(十)룡산역전의피난
민과구호대의활동

(十三)침수되여가는
룡산시가의광경

患者가一千九百餘人

慶南金海郡大渚面의慘狀

흙물파생과실을먹는까닭으로병자가속출

特派員 崔國鉉發信

락동강(洛東江)의 범남으로 인하야 김해군대저면(金海郡大渚面)일대에살든 우리동포이천여호와 인구로일만이천여인이 별안간 홍수내림는 폭류로인하야 가옥의 침수는물론이오 삼분의 이는 류실을당하얏스며 겸하야 농작물이 각고는 전멸상태에 이르는참상을 당하얏는데 십삼일 이후로 강물은차차감하야 지금에이르러는 보통때와 별로다르지아니하나 대저면섭안으로 말하면 원래디형이집흔데다가 나가는구녁이 좁음으로 이래일주일동안을두고 자긔집이라고 바라는보면서도 드러가지 못하고 방축독삿자리집에서

저녁이면 모진모긔와괴로운버레로부려싸와가며사는 중인네 더구나이곳으로 말하면 여러가지의 미신으로 인하야열마의일본인을 제한외에는 조선인촌에는 전부홍물을 갓지아니하얏는데다가 사면이 홍랑물판임으로 엇결수업시 그물을마시게되고 또는경남도령의 구호도 매우지력하는 모양이나 원래피난민이 만히잇슴으로 할수업시 호박과 오이

사과등속 으로연명을하게되는고로 날마다 느러가는것은병자임으로 경남도령 위생과(衛生課)와 경남도립의원(道立醫院)의사가출장하야 구호하는중이나 사람은만코 병자는뒤를이어서 속출하야 경남도령됴사로 적리(赤痢) 장질부사(腸窒扶斯)등의환자가 벌서일천구백여명에 달함으로 일반으로서는 물론이오 당국자로도 고심중에 잇더라

清、鳥間交通 침수로두절되야

密陽避難民慘狀

所謂救濟는一日五錢式

近千斗落浸水

聞慶附近에는

金泉附近交通

烏山浸水五十

三浪津減水

元山에도 一家族이慘死

漢城醫師施療

二村洞避難民

江陵의 田穀被害

京釜線은 二十三日부터開通

一名이溺死

鳥致院浸水 二百戶

抑奪된救濟穀

假家는孝昌園에

惡家主嚴重處罰

龍山驛當分閉鎖

軍資募集事件

青年女子의 階級戰

仲媒者를毆打致死

永新校事件 尹鄭의求刑

華人料亭主가 刑事걸어告訴

夏期巡廻講演

兩金氏出獄

洛東江沿岸水害地에 本社醫療班兩隊出動

水難義金

救濟會에온것

本社에온것